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 6:9)

Our Father in Heaven

(Matt. 6:9)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십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says, “This, then, how you should pray,” and first of all He calls out, “Our father in Heaven” and teaches us, who our subject is to pray, our God.

1.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은 기도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은 참된 기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대화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1. God who is

The reason why we pray is that God who is our subject of prayer is in existence. It is needless to say, in the midst of our prayer life, how much the faith of which God is clearly in existence is important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eb. 11-6). Here, “Those who come to God” and “those who look for themselves” indicate the configuration of the prayer.

The faith of which God is clearly in existence will become a truthful beginning in prayer. If we converse with God in this faith, our prayer should be deeper and more joyful.

2.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이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거룩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의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 우리가 결코 근접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딤후 6:15-16) 이라고 영광의 찬미를 읊습니다.

2. God who is in Heaven

God who hears our prayer is a ‘God who exists in Heaven.’ This means God’s transcendence.

Heaven that refers to ‘uranois’ in Greek is the space where Jewish people do not dare to approach but is full of holiness, nobility, and power.

Omniscient, omnipotent, and omnipresent God, glorious and almighty creator God is in Heaven and we do not dare to approach Him and look at Him.

The Apostle Paul gives the praise of glory toward the wonderful God, “God, the blessed and only Ruler,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who is alone immortal and who lives in an unapproachable light, whom no one has seen or can see. To whom be honor and forever. Amen.” (1 Tim. 6:15-16).

3.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만약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 나타난 하나님이 초월하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만 멈췄다면 이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기도에 나오는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족 관계 속에서 통용되는 아버지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가장 친밀한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God who is in Heaven is our Father

If we are left with the fact that God is revealed only as omniscient, omnipotent, and omnipresent, then we fall short of the truth of the gospel. The fact is, He is also our Father. Father in the Lord’s Prayer that refers to ‘pater’ in Greek indicates the designation of father used in the relationship of family.

Though God is a God of transcendence, glory, and power, He is a very close Father to us, who loves us too much, and made His only son Jesus Christ die on the cross for us. Like this, the fact that we confess that God who is in Heaven is our Father means that God who is in us, that is to say, He gave us His only Son owing to our si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는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대화로 드러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주와 세계 가운데 분명히 계신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아با 아버지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므로 기도생활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If we enter into a relationship with God impersonally, then prayer cannot be accomplished. The prayer must be given to God with a personal conversation in a close relation.

Our life is not decided by someone in the midst of us, but by God whom we live together with in a deep and meaningful relationship.

God who is clearly living in the universe and the world is a God of glory, holiness, nobility, ability, power, and wisdom. However, you must never forget that He is our very close Father.

By conversing with Him deeply,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enjoy the life of prayer as much as we ca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4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9월 3일(월)-11월 5일(월) 10주간 /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 홀

제4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전도와 교회 성장"을 주제로 9월 3일(월)부터 11월5일(월)까지 10주간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열린다. 1교시(오후2시 - 오후3시30분)는 김정우 교수가 창세기 강해(12-50장)를 2교시는 주제에 따라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목회자들의 목회발전과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위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 | 월/일 | 주 제 | 강 사 |
|----|-------|--|-------------------------------------|
| 1 | 9/3 | 파워관계 전도법 | 송기배 목사 (가정사랑학교 대표) |
| 2 | 9/10 | 아파트 전도법 | 김인아 목사 (구하리교회) |
| 3 | 9/17 | 진돗개 전도법 | 박병선 집사 (순천순동교회) |
| 4 | 9/24 | 해피데이 전도법 | 김한욱 목사 (새안양교회) |
| 5 | 10/1 | 휴 강 (국군의 날) | |
| 6 | 10/8 | 빌립 전도법 | 변은미 전도사 (빌립 전도협회 대표) |
| 7 | 10/15 | 전도? 전도! 전도... | 김문훈 목사 (포도원교회) |
| 8 | 10/22 | WEA(세계복음주의연맹)- WCC(세계교회협의회) Dialogue |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원로,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 9 | 10/29 | 오이코스 전도법 | 이상만 교수 (오이코스코리아 대표) |
| 10 | 11/5 | 예심 전도법 | 김기남 목사 (부천예심교회) |

제32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9월 3일(월) - 11월 11일(주일) (10주간)

2012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9월3일(월)에 개강하여 11월11일(주일)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성도들과 지역주민들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 강의로 준비되고 있다. 열린 프로그램 일정은 하

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천국시민을 양성하고 만민에게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2012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에 참여를 기다린다.

| 강 좌 | 요일 및 시간 | 담 당 | 장 소 | |
|-------------------|----------------------|--------------------------|--------|------|
| 성경 과목 (10주) | 로마서 반 | 월, 오전 10:00-11:00 | 서명철 목사 | 602호 |
| | 마가복음 반 | 목, 오전 6:00-7:00 | 박진아 목사 | 602호 |
| | 느헤미야 반 | 금, 오전 6:00-7:00 | 정수길 목사 | 602호 |
| 성경통독 반(10주) | 목, 오전 10:30-12:00 | 황 광 목사 | 602호 | |
| 교사 양성반 | 주일, 오후 3:20-4:30 | 교역자 전체 | 609호 | |
| 주중 교사 양성반 | 금, 오후 7:00- 8:00 | 교역자 전체 | 503호 | |
| 교구일꾼 양성반 | 주일, 오후 3:20-4:30 | 교역자 전체 | 607호 | |
| 주부대학 | 화, 오전 10:00-오후 1:00 | 한상은 목사 | 601호 | |
| 살롬 경로대학 | 목, 오전 10:00-오후 1:30 | 서명철 목사 | 101호 | |
| 꼬꼬마가베 학교 | 화, 오전 10:00-오후 12:00 | 최인에 전도사 | 706호 | |
| 영어성경공부반 | 수, 오후 8:30-10:00 | Steven Martinolich 목사 | 603호 | |

| | | | |
|--------------|--|--------|------|
| 서울음악교실(10주간) | 주일, 오후 1:30-3:00 (9/9 - 11/11) | 박정선 장로 | 601호 |
| 결혼예비학교 (5주간) | 주일, 오후 12:30-1:30 (9/9 - 10/14) | 한상은 목사 | 905호 |
| 수화교실 초,중급반 | 주일, 오후12:50-1:50(초급반) 주일, 오후 4:00-4:50(중급반) (9/2 - 12/9) | 임규현 목사 | 606호 |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출국

자바섬 말랑, 바뚜, 라와, 토사리로

2012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단(단장 : 김규태 집사)이 8월 2일(목) 선교사역지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이들의 사역과 건강, 입국절차 및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많은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58]

문 55) 민수기 24:7에 나오는 아각과 삼삼 15:8의 아각은 시대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 : 아각은 강포한 자란 뜻을 가진 아멜렉 왕이었으나 이것은 개인의 이름(고유명사)인지 불렛 아비멜렉이나 애굽의 바로나 로마의 시저처럼 아멜렉의 왕에게 붙여진 명칭인지 양론이 있으나 후자의 설이 유력합니다.

민 24:7은 이스라엘 왕이 강한 왕의 대명사인 아각보다 더 강하고 더 높아 그 나라가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주전 931년 북 왕국을 시작한 여로보암 보다 793년부터 753년에 통치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더 잘 알려져 있듯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니기아에 두 임금들 즉 히람과 아히람, 수리아에 두 명의 벤하다드, 그랄에 두 아비멜렉, 애굽에 세 명의 바로, 12왕조 때만도 네 명의 아멘네메트, 18왕조 때 4명의 투트모스와 네 명의 아멘호테프가 있었습니다.

미디안 문화로부터 기록으로 남겨진 자료는 없지만 그들이 좋아한 이름들은 대를 이어서 계속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문 56)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일로 염병이 퍼져 죽은 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답) : 민 25:9에서 바알에게 예배하던 바알브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고전 10:8에서 사도 바울은 음행(우상숭배)하다가 죽은 자가 이만 삼천 명이었던 것이 민 25장에 있는 바알브올의 배신자들에게 내린 재앙을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재앙은 금송아지를 섬기던 배신자들에게 내려진 염병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전 10:7에서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금송아지를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을 출 32:6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는 신약에서 언급되었을 뿐이므로 성경에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구절은 없으며 민 25장의 이만 사천 명이 죽은 것과 고전 10:7에 언급된 이만 삼천 명이 죽은 것은 다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주 계속)

▶ 캄보디아 단기선교보고

캄보디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임흥수집사(캄보디아 단기선교부단장)



마나하임 교회앞에선 캄보디아 단기선교단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소서”를 주제로 김금준단장을 중심으로 푼뜰 뭉친 25명의 2012년 제12기 단기선교팀 일행은 출발 예배 후 격려와 배움의 손을 흔드는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선교대학과정을 마치고 지난 5월부터 매주 월요일 늦은 시간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번 선교를 준비하며 그 과정 하나 하나 세밀히 점검하고, 또한 국내에 유학중인 캄보디아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언어도 배우고 대부분 선교도고기도팀에서 기도로 무장한 전사들이었지만 캄보디아로 떠나는 대원들의 모습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0kg에 가까운 짐을 별도 비용 없이 모두 개인휴대화물로 탁송하여 뜨겁게 펜공항을 무사히 빠져나와 이재울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선교센터에 내려놓고 침대에 누운 시간은 새벽 한시였습니다. 다음날 늦은 저녁시간, 최종목적지인 캄퐁츠낭에 도착하여 3일간의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그리고 어린이학교 프로그램, 성경학교 수료식,



마나하임교회 헌당예배

헌당식 준비로 우리 단원 모두는 눈코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단기선교의 하이라이트였던 7월 31일의 캄퐁츠낭의 마나하임 교회 헌당식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 세 분(김광신, 이갑진, 신용식 장로님)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헌당식은 35도를 훨씬 웃도는 폭염과 다습한 날씨 가운데 치뤄졌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시원한 기쁨의 강물이 흘렀습니다.

교회 안팎의 청소를 담당하였던 초등학교 3학년의 박성준단원, 작년 흥해작전기간 중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박영석성도, 부족한 재료로 매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을 직접 준비하여 허기진 배를 달래주었던 식탁팀 등 모두는 기드온의 용사들처럼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유난히도 까만 눈동자의 담겨있는 어린이들의 모습, 아버지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실에서 흘렸던 눈물들, 사랑하는 부인에게 읽어주는 남편들의 사랑스러운 편지를 보며 흘리는 어느 어머니의 눈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기도하는 모습



어린이 성경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약 10톤의 작은 돌을 도구 없이 맨손으로 작업하면서 뿌렸던 땀방울은 우리 삶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밤에 깊은 수렁에 빠진 버스를 뒤로하고 선교사님이 운전하시던 픽업트럭의 적재함에서 추위에 떨며 숙소로 돌아온 기억이 새롭습니다.



성경공부를 열심히하는 어린이들

우리는 캄보디아 캄퐁츠낭에 힘을 다해 주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위식 찬양을 함께 배우며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 안에 계속돼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 (마5:13-16, 벰전2:11-12) -

2012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까지 교육1국 유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가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에바다부가 31일(화)~8.1일(수), 디아스포라부가 8월 2일(목)~4일(토)까지 열린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바란다.

| 부서 | 일시 | 장소 | 주제 | 강사 |
|-------|---------------|-------|-------------|------------------|
| 청년1부 | 8.15(수)~17(금) | 아가페타운 | 부르심 | 박노철 목사 박진아 목사 |
| 청년2부 | 8.15(수)~17(금) | 아가페타운 | KNOWING GOD | 박노철 목사 오세광 목사 |
| 신혼가정부 | 8.15(수) | 서울교회 | 빛과 소금된 가정 | 한상은 목사 |

세례를 받고

통회의 눈물

김영복 성도 (10교구)



왈칵 뜨거운 눈물이 복받쳐 흘렀습니다. 박노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성수를 내 머리 위에 뿌리며 세례식을 하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토록 망설이며 교회 앞에서 맴돌았던 저의 나 는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55년 살도록 참회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내가 지금, 내안에 남아 있던 오만과 교만을 씻어내며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을 가슴에 모시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새 생명을 부여 받았으니 새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실한 불교인의 가정에서 불교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안 받아왔던 무형유형의 종교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로 귀의하기까지 참 사연도 많았습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의 뜻은 이미 예정된 것 같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을 보고야 진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의식하지 않은 영혼의 진정한 회개의 눈물, 세례식에서 체험했던 내 생애 첫 경험, 그것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동안 감사한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교회로 나를 인도하신 친형같은 권광환 집사님, 새가족부에서 정성껏 보살펴주신 김재중 집사님, 깊은 관심으로 가슴깊이 응원해 주신 권사님들의 기도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분들께 작게나마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우선 성수 주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헌직 경찰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디서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합시다

5,6,7,8층에 분리수거통이 설치 되었다. 각 부서는 분리수거하여 하절기 위생에 힘쓰기 바란다.



교육 1국 - 여름성경학교



목사님 설교도 초롱초롱한 눈으로 듣고!



올동도 이쁘게 이쁘게~~~

중등부 - 여름 수련회



동정

- 공연 : 15교구 신모란 성도 '피가로의 결혼' 8.10(금)~12(일) 국립극장 KB 청소년 하늘극장
- 주간식당봉사 : 뱀퇴전도회(8.5) 마리아전도회(8.12)
- 금주의 식사 : 방효철 장로 남상경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우리의 워십댄스를 받아주세요 주님!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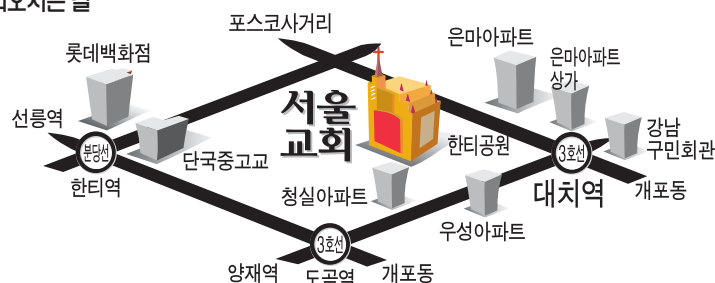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8월 9일 (목) 귀국하시는 박노철 담임 목사의 영육간 건강검을 위해
2. 계속 이어지는 청년 12부와 신혼가정부 여름수련회를 통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3. 계속되는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단이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 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 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영어 예배 | 주일 오전 11시 20분 |
| 수요 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20분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 30분 |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